

성별	남	나이	67세	직종	할석공	직업관련성	있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 1. 개요

김○○은 198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20년간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를 하였다. 마지막 근무지인 H사에 2008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22개월간 근무하였다. 4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기침, 가래 증상으로 2010년 4월 A병원에서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다. 2010년 5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소음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.

## 2. 작업환경

1989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25년간 할석공으로 근무를 하였다. 공사현장에서 벽체, 바닥, 천정 등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거나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골조 후 벽체가 변형된 곳을 떼어내거나 바닥을 깨는 일을 20년간 하였다. 하루에 약 9시간 근무하였으며 60분정도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면 5분 가량 쉬는 형태로 작업을 했고 평균 3~4명 가량이 같은 장소에서 할석작업을 하였다.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치와 그라인더를 사용한 작업장에서 86.1dB(A)로 측정되었다. 귀마개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으며, 소음 노출수준이 최고치 117.5dB(A)의 측정결과를 보인다.

## 3.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1998년도에 담낭제거술 수술 받았고 2001년부터 2010년 4월까지 귀로 인한 질환이 없었으며, 2003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중이다. 그 외에 기저질환은 없었다. 2010년 건설업의 분진에 의한 진폐의증을 진단받았다. 특수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다.

#### 4. 결론

김○○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

- 소음 노출수준이 100dB(A)이상으로 매우 높고 노출기간도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,
- 20년간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.